

전국 규모 창업 페스티벌 전주서 열린다

전주시·전북자치도·은행권청년창업재단, 25~26일 창업자·투자사 등 1000명 이상 참여 창업경진대회 등 진행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국 규모 창업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

전국 창업자와 투자사 관계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창업경진대회(디데이) △유망 창업 기업 제품박람회 △K콘텐츠 특화 전주한옥마을 위케이션 및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창업경진대회인 디데이에 참가한 팀에는 최대 3억 원의 투자 검토와 함께 디캡프 프론트윈 1년 6개월의 입주 기회가 주어지며, 디데이 열라이언스의 후속 투자 검토도 이뤄진다.

이 가운데 디데이 우승팀인 '디캡프

상' 수상 기업에는 디캡프·프론트윈 우선 입주권과 더불어, 서비스 홍보를 위한 3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 연말까지 디캡프에서 선발한 유망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겪는 상용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 실증을 지원해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 일대가 혁신기술 시제품 및 홍보를 위한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내 공간 플랫폼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제품 실증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디데이의 발표 및 실증에 참가한 전주지역 업체인 동성아이텍과 비트리 등 2곳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5일 개최되는 전주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이번 행사 및 실증 지원을 1회성 사업이 아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네트워크의 발자취로 삼아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킨 경협이 풍부한 디캡프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며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창업생태계가 더욱 견고히 성장하고, 향후 전주의 창업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지원책 마련에 힘껏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19개 금융기관이 지난 2012년 5월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으로, 그동안 △토스 △한국신용데이터 △핀팻 △이노스페이스 등 주요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가들의 베이스캠프'로 불리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 무책임한 제출안”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 제기… 전주시 “효율적 재정운용 위해 불가피”



최서연 의원

지난 19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는 이 변경안 제출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가 풀어나가는 기금들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등 9개 18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 때에도 60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시켰다. 풀어나가는 대신 시는 각 기금들에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황계획이 '각 기금의 상황 요청서'로 제출된 것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황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황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 예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버스재정지원, 지역화폐발행,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 등 일반회계에 사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며 "사용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이며 이자 비용도 8억이 아닌 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의원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당해놓은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간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

/김옥기 기자



전주시 동서학동 통장협의회 주민과 함께 여름꽃 식재 나서

완산구 동서학동(동장 정혜운)에서는 주민센터 앞과 주변 동네에 통장협의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화단을 정비하고 가우라, 백일홍, 멜라포디움 등 여름꽃 총 300여본을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름꽃 3종으로 화단을 조성해 무더운 여름,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서학동에 새로운 희망을 싣기 위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혜운 동서학동장은 "올해 여름꽃 식재행사는 더욱 의미가 특별한 것 같다"며, "주민들과 함께 화단을 꾸리고 아름다운 동서학동 만들기에 한마음이 된 시간이었으며, 아름다운 동네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학동은 서화로 거리 활성화를 위한 꽃거리 조성을 위한 '서화로 풍당풍당 꽃거리' 조성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왔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기후 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시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 중립 시대 대응 협력 방안 논의

우범기 전주시장, 한국전력공사 본사 찾아 김동철 사장과 의견 나뉘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기후 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시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성공적으로 확산해나갈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또한 미래세대 등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해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마중물이 될 다양한 협력 방안들도 함께 논의했다.

/김옥기 기자

여름 휴가철 화재예방 행동요령 홍보

전주완산소방서, 휴가 출발 전 전자제품 전원 차단 등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2일 도내 학교가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이만부터 여름 휴가철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무더운 여름철에 증가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 휴가철 기간동안 전기 사용 급증, 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주요 내용은 △여름휴가 출발 전 전자제품 전원 차단 △가스 중간밸브 잠그기 △차량 내 리어터, 휴대용 배터리, 캠핑용 부탄가스 등 방화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송천2동 자율방재단, 운주면 수해 지역 복구 도와

전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이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9일 운주면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이번 폭우로 운주면은 인근 하천의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하천이 범람하여 운주면 일대 관공서는 물론 인근 상가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송천2동 자율방재단 5명은 자



발적으로 피해복구 현장에 참여해 민가에 쏟아진 토사물을 제거하고 침수 집기 세척, 폐기물 처리 등 마을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힘을 모았다.

/김옥기 기자

